

MomentBook: 브랜드 전략 및 콘텐츠 기획 베이스 문서

콘텐츠 제작용 원천 소스 텍스트 | 최종 수정: 2026-01-27

1. 서비스 소개

한 문장 정의 (초압축)

MomentBook은 SNS가 아닌, 개인의 순간을 '여정(Journey)' 단위로 보관하고 회상하는 기록 아카이브 앱이다.

세 문장 정의 (짧은 소개)

MomentBook은 노출과 경쟁을 위한 소셜 미디어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이 담긴 '여정' 단위로 개인의 경험을 기록하고, 온전히 자신을 위해 보존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기록의 본질인 '회상'에 집중하며, 필요할 때 소중한 사람에게만 여정의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 문제 정의 (왜 필요한가)

사용자는 기존 기록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피로감과 한계를 느낀다.

- 기록의 파편화:** 여행, 프로젝트 등 하나의 경험이 여러 SNS와 갤러리에 사진, 영상, 글로 흩어져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회상하기 어렵다.
- 과시적 기록의 압박:** '좋아요'와 시선을 의식해 경험의 본질보다 과시하기 좋은 순간만 편집하여 기록하게 된다.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은 버려진다.
- 휘발되는 기억:** 알고리즘 피드와 스토리 기능은 기록을 끊임없이 소비하고 흘러보내, 정작 자신의 기록조차 다시 찾아보기 힘든 휘발성 콘텐츠로 만든다.
- 맥락의 상실:** 장소와 장소 사이의 이동 경로, 시간의 흐름,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 등 경험의 '과정'이 삭제되고 결과물(사진)만 남는다.

- **원치 않는 노출과 관계의 피로:** 전체 공개가 기본인 환경에서 모든 기록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사적인 기록을 위해 비공개 계정을 따로 운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경험 방해:** 기록(업로드) 행위 자체가 경험의 흐름을 방해한다.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하느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
- **정리의 부담:** 기록이 쌓일수록 이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정리를 포기하고 기록들을 방치하게 된다.

3. 해결 방식 (어떻게 다른가)

MomentBook은 문제 정의에 명시된 불편함을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 **여정(Journey) 단위 기록:** 시작과 끝이 있는 경험을 하나의 ‘여정’으로 묶어,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기록을 입체적으로 보존한다.
- **비교 구조의 배제:** 좋아요, 팔로워, 랭킹, 추천 피드가 없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 기록의 목적이 ‘보여주기’에서 ‘간직하기’로 전환된다.
- **영구적 아카이브 설계:** 모든 기록은 사용자의 개인 공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영구적 아카이브가 된다. 휘발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쉽게 꺼내볼 수 있다.
- **과정의 시각화:** 이동 경로, 머무른 장소, 시간의 순서가 여정 안에 자연스럽게 담겨, 결과뿐 아니라 경험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회상할 수 있다.
- **비공개 우선과 선택적 공유:** 모든 기록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다. 공유가 필요할 때만 특정 여정의 고유 URL을 생성해 원하는 상대방에게만 전달하는 ‘초대’의 개념을 사용한다.
- **기록에 집중하는 UX:** 기록 과정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기록이 끝나면 사용자가 앱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설계한다.
- **AI 기반 정리 보조:** AI가 제목, 요약, 장소명 정리 등을 도와주어 사용자가 기록의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정리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4. 핵심 개념 정리

Journey (여정)

MomentBook의 가장 기본적인 기록 단위. 특정 시간 동안의 경험의 흐름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는 개념이다. 단순한 사진 포스팅이 아닌, 시작과 끝이 있는 이야기(예: 3박 4일 여행, 주말의 산책, 퇴근길의 단상)를 담는 그릇이다.

3가지 경로 표현 모드

여정의 경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선택하는 설정이 아닌, 수집된 GPS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 앱이 자동으로 적용하는 **3가지 시각적 표현 방식**이다. 시스템은 데이터의 정밀도와 양을 판단하여 최적의 경로 스타일을 결정한다.

- **ROUTE_STRONG:** GPS 데이터가 풍부하고 정밀할 때 적용된다. 이동 경로를 선명하고 상세한 선으로 지도 위에 표현하여, 동선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 **ROUTE_WEAK:** GPS 데이터가 간헐적이거나 정밀도가 낮을 때 적용된다. 경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느슨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경로를 표현한다.
- **ROUTE_NONE:** 사용자가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GPS 데이터가 전혀 수집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지도 위에 경로가 표시되지 않고, 기록된 장소들만 나타난다.

Publish (공개)

기록된 여정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위한 기능. SNS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다. ‘Publish’를 선택하면 해당 여정만을 위한 고유한 웹페이지 URL이 생성된다. 사용자는 이 URL을 카카오톡, DM,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여 공유한다. 이 웹페이지는 링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검색 엔진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 MomentBook은 앱 내에서 이 링크를 노출하거나 확산시키지 않는 ‘조용한 공유(Quiet Diffusion)’를 지향한다.

AI의 역할

사용자의 기록 행위를 보조하는 조력자. AI는 사용자를 대신해 창작하지 않는다. 기록된 사진, 위치, 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정의 제목을 추천하거나, 긴 글을 요약하거나, 방문한 장소명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등 **기록 정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에 한정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기록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더 쉽게 자신의 아카이브를 완성할 수 있다.

5. ‘MomentBook이 아닌 것’ 리스트

오해를 방지하고 서비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아니다:** 친구를 맺고, 피드를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다.
- **실시간 위치 공유 앱이 아니다:** "나 지금 여기 있어"를 알리기 위해 실시간으로 내 위치를 중계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 **콘텐츠 소비 플랫폼이 아니다:** 타인의 삶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회상하는 곳이다.
- **단순 사진 갤러리가 아니다:** 사진을 날짜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담은 ‘여정’으로 구조화한다.
- **바이럴 콘텐츠 제작 도구가 아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갈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 **경쟁과 순위의 장이 아니다:** ‘최고의 여행기’, ‘이달의 작가’처럼 사용자의 기록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 **완전 폐쇄형 서비스가 아니다:** 'Publish' 기능으로 생성된 URL은 웹상에 존재하는 페이지이므로, 기술적으로 완벽히 차단된 비밀 공간은 아니다.

6. 타겟 사용자 페르소나

여행 기록형: 김지수 (32세, 마케터)

1년에 한두 번 긴 여행을 떠나며, 여행의 모든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 기존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은 단편적이라 아쉬웠다. 여행의 전체 동선과 각 장소에서의 감상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생생하게 회상하고 싶어 한다. 이 기록을 불특정 다수보다는 함께 여행했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소수의 지인에게만 공유하길 원한다.

산책 기록형: 박서준 (45세, 건축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다. 이 시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한 의식으로 여긴다. 계절의 변화, 그날의 경로, 떠오른 단상들을 조용히 쌓아두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산책 기록이 모여 하나의 두꺼운 일기장이 되기를 바란다.

조용한 공유형: 이하나 (28세, 대학원생)

주말마다 취향이 담긴 카페나 전시를 찾아다니는 것을 즐긴다. 자신의 기록이 정성스럽게 정리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SNS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정말 좋았던 경험은 친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잘 정리된 여정의 URL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며 "여기 정말 좋았어!"라고 말하는, 가볍지만 의미 있는 공유를 선호한다.

7. 대표 사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낯선 도시에서의 3일 (여행 기록)

김지수는 교토 여행을 위해 MomentBook에서 ‘교토의 가을’이라는 여정을 시작한다. 야외 활동으로 GPS 데이터가 풍부하게 수집되자, 앱은 이를 기반으로 **ROUTE_STRONG** 표현 방식을 적용해 그녀의 경로를 선명하게 기록한다. 그녀는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에서 찍은 사진과 짧은 메모를, 니시키 시장에서 먹은 음식 사진을 여정에 추가한다. 3일간의 모든 동선과 사진, 메모가 하나의 여정에 담긴다. 한국에 돌아와 AI의 도움을 받아 각 날짜별 소재목을 정리하고, 여정을 ‘Publish’한다. 생성된 URL을 부모님께 보내며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다녔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시나리오 2: 이름 없는 언덕의 저녁 (일상 기록)

박서준은 해질녘 산책을 시작하며 습관처럼 MomentBook의 여정 기록을 켜다. 그는 위치 정보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은 경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ROUTE_NONE** 모드로 기록을 시작한다. 그는 언덕 정상에서 노을 사진 한 장만 찍고 아무 글도 남기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 여정을 종료한다. 그의 MomentBook 아카이브에는 ‘1월 27일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노을 사진 하나만 담긴 기록이 조용히 추가된다. 한 달 뒤, 그는 캘린더 뷰에서 자신이 기록한 20개의 노을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

시나리오 3: 취향의 발견과 공유 (테마 기록)

이하나는 ‘성수동 독립서점 탐방’이라는 테마로 여정을 기록한다. 각 서점에 들를 때마다 인상 깊었던 책 사진과 공간에 대한 감상을 꼼꼼히 남긴다. 실내와 골목을 오가며 GPS 데이터가 간헐적으로 수집되자, 앱은 이를 불충분한 데이터로 판단하여 이동 경로를 **ROUTE_WEAK** 방식으로 부드럽게 표현했다. 집에 돌아와 전체적인 글을 다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커버로 설정한 뒤 여정을 ‘Publish’한다. 그녀는 이 URL을 자신의 독서 모임 채팅방에 공유하며, 다음 모임 장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친구들은 앱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그녀의 탐방기를 볼 수 있다.

8. 핵심 메시지 문장 후보

1. 기록은 노출이 아닌, 보존입니다.

2.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3. 흐름을 기록하다.

4. 순간이 모여 여정이 되다.

5. 비교가 없는 기록의 공간.

6. 기록하고, 일상으로.

7. 가장 개인적인 아카이브.

8. 공유는 확산이 아닌, 초대입니다.

9. 나를 위한 기록의 본질.

10. 지도가 되는 당신의 시간.

9. 금지 문구 / 피해아 할 표현

서비스의 철학과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아래 표현들은 사용을 금지한다.

- **"완전 비공개 공유", "우리끼리만 보는 비밀 공유"** - 생성된 URL은 웹 기술상 공개된 페이지이므로, 프라이버시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뉘앙스는 부정확하다.
- **"외부 접근 원천 차단"** - 사실이 아니다. 링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 **"우리만의 SNS", "새로운 개념의 소셜 미디어"** - SNS가 아니라는 정체성을 희석시키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실시간 위치 추적/공유"** -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 아니며, 사용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 **"최고의 여정을 뽑아주세요", "인기 여행기"** - 경쟁과 랭킹 요소를 암시하는 모든 표현을 배제한다.
- **"당신의 일상을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 과시와 노출을 지향하는 듯한 표현은 서비스 철학에 반한다.
- **"AI가 당신의 여행기를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AI는 보조 역할임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의 주체성을 침해하는 뉘앙스를 피한다.

10. 최종 요약

MomentBook은 현대 디지털 기록 문화에 대한 성찰적 대안을 제시한다. 파편적이고, 과시적이며, 쉽게 휘발되는 기존의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경험의 ‘과정’과 ‘맥락’을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서비스의 핵심 단위인 ‘여행(Journey)’은 단편적인 순간의 합이 아닌, 시간의 흐름을 담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서 기능한다.

이곳에서 기록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회상과 보존의 행위가 된다. MomentBook은 의도적으로 ‘좋아요’와 같은 비교의 척도를 제거하고, 사용자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험에만 집중하도록 돕는다. 기록의 과정이 현재의 경험을 방해하지 않고, 기록이 끝난 후에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용한 도구’를 지향한다.

공유(Publish)의 개념 또한 확산이 아닌 ‘초대’에 가깝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신중하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MomentBook은 기술을 통해 기록의 본질, 즉 ‘스스로를 위해 간직하고 되새기는 것’의 가치를

복원하고자 한다. 이는 가장 개인적인 삶의 궤적을 담는, 단단하고 믿음직한 디지털 아카이브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철학이다.